

재외동포의



2013 4월호

특집 : 4~9

'2013 세계한상대회' 10월 광주서 개막
한상운영위 & 리딩CEO포럼 개최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한국의 대표적 왕실 정원 경회루와 부용지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정원 문화가 발달하진 않았다. 산수가 수려해 인공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하지만, 왕실의 정원은 궁궐에 남아 있어 옛 품격을 느낄 수 있다.

대표적인 왕실 정원은 경복궁의 경회루 영역과 창덕궁의 부용지를 꼽을 수 있다. 두 곳 다 궁궐의 형식에 맞춰 연못을 사각형으로 팠다. 큰 국가 잔치를 열었던 경회루가 공식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부용지는 왕실의 사적인 성격이 강한 정원이다.

두 정원은 왕을 위해 만든 곳이라 왕의 자리에서 즉, 안에서 밖을 내다볼 때 가장 경치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경회루는 누각 중 왕의 자리에서, 부용지는 정자 맨 앞에서 보는 것이 제대로 된 감상법이다. 연못에는 하늘과 산,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이 비쳐 그것 역시 아름답기 그지없다. 이것을 경치를 빌려온 것이라 해서 차경(借景)이라고 한다.

2	한국의 열	한국의 대표적 왕실 정원 경회루와 부용지
3	목차	
4	특집	‘2013 세계한상대회’ 광주서 열린다 10월 29일부터… 세계 40여 개국서 3천여 명 집결 “모국과 동반성장”
10	한민족공감	“빛 많은 서민 돕는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외
12	화제	유럽 한글학교 교사들 헝가리서 세미나 한글 교수법 등 논의… 차세대 글짓기 시상도
14	현장의 목소리	재외동포 언론인들 한자리에 한민족 공동체 발전 논의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재외동포언론인대회 국내서 열려
16	OKF뉴스	재외동포재단, 동북아역사재단과 ‘교육용 콘텐츠 활용’ 협약 외
18	지구촌 통신원	한국 스타일 vs 독일 스타일 이은주 독일 〈재외동포의 창〉 통신원
20	한글학교 탐방	애니깽 후손에게 ‘조국’을 심는 멕시코 소망한국학교
21	우리말 배워봅시다	
22	글로벌 코리아	“중국 진출, 현지 기업과 ‘동반’ 협력 중요” 조선족 기업가 엄광철 선성글로벌 사장
23	재외동포문학	빨래 금혜정(싱가포르) 2012 동포문학상 시부문 가작
24	나의 살던 고향	낯은 사진첩 속 풍경, 그리고 새만금… 군산
26	재단공지 및 독자후기	



표지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동포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을 도모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포 비즈니스의 장’으로서, 올해 대회는 10월 29일부터 서울 동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 40여 개국의 3천여 명이 참가하는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발행인: 김경근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13 세계한상대회’ 광주서 열린다

10월 29일부터... 세계 40여 개국서 3천여 명 집결 “모국과 동반성장”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동포 경제인과 국내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을 도모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포 비즈니스의 장’으로서, 올해 대회는 10월 29일부터 사흘 동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 40여 개국의 3천여 명이 참가하는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1



2



3

- 1 광주에서 열리는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호남권 최초 대회에 걸맞게 광주, 전남·북을 연계하는 권역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해 대회 참가 한상과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 2 4월 23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한상(韓商)대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근)에서 부산이 '2014년 제13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결정됐다.
- 3 재외동포재단은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를 활성화해 '비즈니스와 교류의 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는 등 한상 브랜드의 위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 세계 한인경제인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한마당인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남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리딩CEO 포럼,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업종별 비즈니스 세미나, 전략세미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투자설명회, 멘토링 세션, 기업전시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영비즈니스&한상네트워킹을 비롯한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꾸며질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세계한상대회를 활성화해 '비즈니스와 교류의 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는 등 한상 브랜드의 위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공동 주관하는 광주시의 특성 살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경근 재단 이사장은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한민족'이라는 공감대로 나의 비즈니스를 논하면서도 파트너의 성공도 함께 고민

해주는 이른바 진정한 한상네트워크의 경험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과 외식 산업을 비롯해 첨단 산업 등 업종별 비즈니스 세미나와 광주 지역과 연계된 전략세미나 등을 통해서 개최지인 부산의 경제발전 및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전시회는 뷰티, 섬유패션, 식품, 생활용품, 전기전자, 기계·자재, 의료 등 품목별로 배치되며, 품목 내에 우수아이디어상품관, 첨단IT관, 우수창업기업관, 한상단체관 등이 다양하게 구성된다. 기업전시회 부대행사로는 국내 유통업체 바이어 상담회와 해외 진출 전략세미나 등이 마련된다.

세계한상대회는 중국의 화상(華商), 인도의 인상(印商)과 같이 세계 17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재외동포 기업인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자는 취지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비즈니스의 장이다.

개·폐회식, 리딩CEO 포럼, 비즈니스 미팅, 기업전시회, 해외

【 특집 】

취업박람회, 한상특화 세미나, 멘토링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외동포기업인 상호 간 경제교류 네트워크 구성은 물론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기업인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무역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호남에서 열리는 첫 대회인 점을 고려해 재외동포기업인과 국내기업인 등 참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과의 지역기업인, 재야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한상대회가 어떤 대회보다도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한상·지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

광주에서 열리는 제12차 세계한상대회는 호남권 최초 대회에 걸맞게 광주, 전남·북을 연계하는 권역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대회 기간에 지역축제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해 대회 참가 한상과 지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4월 23일 세계한상대회 개최 장소인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2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와 23차 한상리딩 CEO 포럼을 잇따라 열어, 광주시만의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한상대회 방안으로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등 지역축제와의 연계, 남도민요제 및 문화예술 갈라쇼, 대중음악제, 코리아안디아스포라 사진전, 전세계 코리아타운생활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더불어 한상 리딩CEO를 초청해 호남권 대학에서 강연 및 네트워킹을 꾀하여 글로벌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부계획을 보고했다.

또 광주시는 12차 세계한상대회를 계기로 광주와 전남·북을 잇는 광역권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호남권의 주요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는 개최 전략도 밝혔다.

광주시는 대회 기간에 총 6회에 걸쳐 갖게 되는 오·만찬 행사도 남도 대표 특산물과 음식재료로 구성된 전국 최고의 한식 메뉴를 개발해 한식코스 시리즈 형식으로 내놓음으로써 대회 참가 한상들에게 '남도의 맛'을 각인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가 준비계획 보고안으로 마련한 내용을 보면, 한상기업과 호남권 중소기업 간 사전 매칭, 맞춤형 사전 1대1 상담, 대표한상과 지역CEO 멘토 결연 등의 방안이 '특색 있는 한상대회'와 '대회 운용 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광주시의 주된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기본 방향 아래 광주시는 이형석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9명의 실·국장과 재외동포재단 세계한상센터장,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사무처장, 김대중컨벤션센터 경영본부장, 광주관광컨벤션부로 사무처장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대회 준비 태스크포스(TF)에서 오는 6월까지 대회 세부계획을 확정키로 했으며, 대회 준비를 광주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주도의 범시민 참여운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22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는 제12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재미 기업인인 홍명기(79) 듀라코트 회장을 추대했다. 홍명기 대회장은 1985년 듀라코트를 설립해 미국 내 특수 페인트 분야 1위, 연간매출 2억 달러가 넘는 업체로 성장시킨 대표적인 한상기업인이다. 공동대회장에는 김우재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송창근 동남아한상연합회 부회장, 허성철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회장, 장원기 중국 한국상회 회장, 그레이스 한재미한인여성경제인총연합회 회장 등을 선임했다.

굴지의 한상들 대거 참여

세계한상대회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리딩 CEO들도 광주대회를 빛내려고 방한 일정을 잡고 있다. 올해 참가하는 리딩 CEO는 대회장인 미국 듀라코트의 홍명기 회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 일본 마루한 한창우 회장, 아마젠홍산의 최종태 회장, 대성엘텍 박병현 회장, 미국 월셔은행 고석화 이사장, 레이니어그룹 홍성은 회장, 패코철강 백영중 회장, 말레이시아 헤니 권 코퍼레이션 권병하 회장, 호주 코스트그룹 천용수 회장 등이다.

또 라오스 민간 재계순위 1위인 코라오 그룹 오세영 회장, 미국의 '호텔왕'으로 불리는 김대인 블루스톤로징 회장, 오스트리아

- 1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에서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 2 세계한상대회에서는 1대1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 3 대회 기간에 열리는 '리딩CEO 포럼'에서는 성공한 굴지의 한상들이 모여 각종 경제 동향 및 한상과 고국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게 된다.
- 4 세계한상대회에서는 업종별 세미나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략세미나 등을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 5 세계한상대회 기간에 열리는 '영비즈니스리더 포럼'은 차세대 한상을 발굴해 한상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 특집 】

영산그룹의 박중범 회장, 캐나다 영리무역의 이영현 회장 등이 자신들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고국을 찾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거상(巨商)들의 매출을 합하면 40조 원에 육박한다.

차기 한상대회를 이끌 '영 비즈니스 리더' 들도 대회 주변 대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으며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가나 한권일 씨를 비롯해 나이지리아 최승업, 러시아 디미트리 박, 미국 변미정·윤폴·김효수, 베트남 최분도, 브라질 이영관, 아르헨티나 정유석, 인도네시아 김종현, 일본 고해정, 중국 김정옥·김철, 필리핀 천주환, 브라질 이승호, 인도네시아 승범수 등 젊은 CEO들은 대구 대회에서도 알찬 비즈니스 성과를 올리려고 서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참가를 독려하는 등 일찍부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들은 패기와 도전의 사업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며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

운영위서 내년 개최지로 '부산' 선정

4월 23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한상(韓商)대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근)에서 부산이 '2014년 제13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결정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내년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부산상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지난 19일 유치 신청서를 재외동포재단에 제출했다.

또 부산장을 단장으로 부산관광공사, 벡스코(BEXCO) 등과 유치단을 구성해 23일 광주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제안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김경근 이사장은 "부산시가 한상대회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갖췄다고 판단해 차기 대회 개최지로 선정했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온 정성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영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부산시는 '한상의 도시'라 할 만큼 동포 경제인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며 "국제회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회가 한상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 측은 "부산으로 개최지가 결정된 배경에는 지난 제6~7차, 제10차 대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동안 부산시민과 지역 기업인들이 재외동포에게 보여준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개최에 적합한 주변 환경 등이 밑거름됐으며 대회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한몫했다"고 전했다.

세계한상대회는 개·폐회식, 리딩CEO 포럼, 비즈니스 미팅, 기업 전시회, 해외취업박람회, 한상특화 세미나, 멘토링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외동포 기업인 간 경제교류 네트워크 구



12회를 맞이한 세계한상대회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이 한상을 통해 해외 수출을 도모하는 생생 비즈니스의 장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성은 물론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기업인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대회에는 47개국 3천222명의 국내·외 기업인이 참가해 비즈니스 미팅 416건 등 생산유발 효과 104억 원, 소득유발 효과 17억 원의 성과를 얻었다.

부산시 측은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각지의 700만 재외동포 경제인을 대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부산의 이미지를 홍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광주의 맛과 멋, 720만 재외동포에 알릴 기회”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2013년 세계한상대회 개최를 통해 720만 재외동포에게 광주를 더 잘 알릴 기회를 갖게 돼 기쁩니다.”

오는 10월 세계한상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강운태 광주광역시 시장은 2008년과 2011년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광주가 부산과 제주를 제치고 2전 3기 끝에 대회 유치에 성공한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시장은 “광주에서 열리는 만큼 대회 운영과 효과가 극대화될 ‘경제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첫째는 수출과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둘째로 시민과 함께 치르는 완벽한 대회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광주’ 브랜드를 높이겠다는 각오다.

그는 “호남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인 만큼 광주, 전남, 전북 등 3개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력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외동포재단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제조업 성장률이 2011년 3.9%로 전국 평균 3%보다 높으며, 광산업, 가전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그린에너지산업, 금형산업, 디자인 산업 등을 핵심산업으로 하여 총 7천478개의 제조업체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세계 각 나라 동포 기업인들과 지역 기업인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수출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계기를 마련한 점이 가장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강 시장은 “그동안 세계한상대회가 수도권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개최됐는데 이번에 광주 개최를 통해 진정한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이뤄내게 됐다”며 “광주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도록 기존 대회와 차별화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고국을 찾을 한상에게 광주의 장점에 대해 “광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맛과 멋의 본향”이라며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는 풍부한 제철 먹을거리와 손맛이 유명하다”고 자랑했다.

또한 “예로부터 ‘예향’으로 불려 온 국내를 대표하는 예술의 도시로 한국화의 허백련, 서양화의 오지호, 판소리의 임방울, 시



광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맛과 멋의 본향이면서 제조업 성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문화와 경제의 도시 광주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을 배경으로 한 광주 시내 전경.

인 박용철 등 뛰어난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곳”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10월 광주에서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등 다양한 국제행사가 열린다. 이들 대회는 세계한상대회 기간에 개최되기에 한상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 시장은 “한상대회 기간에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콘코스 홀에서 대륙별 재외동포의 해외 개척활동, 애환, 최근 기념사업 등을 소개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사진전시회’를 개최해 일반 시민과의 공감대와 동포애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시설은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 모신다는 말이 나오도록 준비하겠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대한 열정과 대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한상대회는 대회 개최로 직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가 100억 원이 넘고, 장기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1000억 원이 넘는다.

강 시장은 “눈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 외에도 재외동포 기업인과 지역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 재외동포들에게 광주를 알리는 홍보 효과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가 유치했던 그 어떤 국제행사보다 내실 있게 준비했습니다. 올 10월 광주를 방문하셔서 광주의 매력에 흠뻑 빠지시기 바랍니다.” **장**

“빛 많은 서민 돕는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새 삶을 열어주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3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하고 저금리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며, 이를 고용과 창업으로 연결해 서민층의 자활을 돕는 기금이다. 서민층에 대한 자활지원은 가계 상황능력을 높여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경제에도 유익한 선순환으로 향하는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의 출범과 관련 “고용부와 연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성공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관례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도 수많은 금융회사와 대출중개업소가 무차별적으로 스팸문자와 전화로 불법대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강도 높은 대책으로 근원적인 예방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금 출범식에서 “자활의지 있는 연체자가 희망을 갖고 재기하게 도우려는 게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서민에게 내일의 꿈을 되찾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금의 부작용으로 지적돼 온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에는 “시비가 발생하지 않게 기금 운용에 엄정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병원 행복기금 이사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33만 명, 저금리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은 3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기금은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임시 접수를,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 접수를 받는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6개월 이상 고금리로 원리금을 갚아 온 채무자가 10% 안팎의 저금리로 갈아타는 전환 대출도 제공한다. 전환대출은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적용되는 협약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는 4천13개로, 전체 협약 대상 금융회사의 97%가 가입했다.

금융위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대부업체를 이용한 연체

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대부업체와 협상해 채권 매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형 대부업체 위주로 협약에 가입했고, 8천 920개 영세 대부업체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체 숫자는 많지만, 실제 대출 규모는 얼마 되지 않아 굳이 협약을 추가로 맺을 필요는 없다”며 “다만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차원에서 미가입 대부업체 채무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접수는 캠프 18개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창**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4월 19일 개막됐다.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와 ‘자연과 인간’, ‘지역과 세계’, ‘나눔과 누림’이라는 부제로 오는 10월 20일까지 6개월 184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풍덕동과 오천동 일원에 자리 잡은 박람회장은 총 면적 111만2천㎡로 수목원구역, 습지센터구역, 세계정원구역, 습지구역 등 크게 4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또 갯벌과 갈대밭 등으로 이뤄진 260만㎡의 순천만 구역은 회장에 직접 속하지 않지만 핵심 관광구역으로 이용된다.

순천정원박람회는 세계 유일의 온전한 습지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을 위해 도심 팽창으로부터 순천만을 보호하는 에코벨트이자, 궁극적으로는 미래를 바꾸는 대서사시, 지구를 바꾸는 큰 생각, 순천시를 바꾸는 정원박람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스코트는 ‘꾸루’와 ‘꾸미’로 순천만을 대표하는 조류 흑두루미의 울음소리 꾸르르에서 착안했다.

정원박람회의 백미는 정원으로 세계전통정원 11곳, 테마정원 11곳, 참여정원 61곳 등 총 83개 정원이 조성돼 있다.

주요 조형시설물로는 한방체험관, 꿈의 다리, 에코지오 온실, 식물공장, 생태체험교육장, 순천문학관, 정원박람회 주제관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세계적 야생조류보호운동단체 의지가 표현된 순천만WWT습지 등이 있다.

문화예술 행사도 풍성해 박람회장 안에서 93종 3천993회 하루 평균 22회, 박람회장 밖 순천시내 일원에서 2천473회 하루 평균 13회의 각종 공연이 각각 펼쳐진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시 풍덕·오천동, 순천만 일원 111만2천㎡의 공간에서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6개월간 열리고 있다.

교통·숙박·식음 등 편의시설로는 주차장 10곳 1만2천935대(승용 1만2천268대, 버스 667대), 숙박시설 71곳 6천860실(1일 1만6천명 숙박) 등을 갖췄고 회장 안에 식음시설 50곳이 마련됐다.

회장 인력은 행정지원 및 대행사 인력 각 230여명, 자원봉사 인력 2천100여명 등 총 2천500여명으로 연인원 14만여 명이 일하게 된다.

박람회 비용은 박람회장 조성 1천64억 원, 주변 연관 산업 1천 95억 원, 운영비 296억 원 등 총 2천455억 원이 투입됐다.

박람회가 개막되면서 관련 경제효과에 대한 관심도 크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은 1조3천억 원의 생산유발, 6천700억 원의 부가 가치와 1만1천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전망하고 있다. **창**

유럽 한글학교 교사들 헝가리서 세미나

한글 교수법 등 논의... 차세대 글짓기 대회 열고 시상도



유럽한글학교협의회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2013년도 한글학교 교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럽 각국의 한글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효율적인 한글 교수법을 논의했다. 유럽한글학교협의회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2013년도 한글학교 교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유럽 전역에서 동포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130여 명의 교사와 국내 재외동포 교육 관계자 등이 참가해 학술 논의와 교류의 기회를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이방원 강사의 '한국 문화유산의 올바른 이해와 한국어 교육자의 자세'와 강용철 강사의 '이중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등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우수 한글학교 사례도 공유했다. 분과별·주제별 토론회도 이어졌다.

유럽은 지역 특성상 미주나 일본처럼 큰 학교가 거의 없다. 대부분 학교가 영세한 상황이고 교사들도 자원봉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은 남달라서 매년 유럽한글학교 교사 세미나가 열리면 유럽 각지에서 몰려든다.

세미나 기간에는 차세대 글짓기 수상식도 열렸다. 재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박종범)와 유럽한글학교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제1회 유럽 한인청소년 한글 글짓기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은 체코

프라하 한글학교 윤어진 학생(중학교 2년)이 차지했다. 또, 초등부 금상에는 마빈 라이스 몰러(독일 함부르크 한글학교), 중고등부 금상에 문혜련(영국 강북런던 한글학교) 학생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럽 내 한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한글 사용을 통한 한민족 정체성 확립 및 한글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글짓기 대회 심사는 유럽총연의 의뢰를 받아 공주대학교 한민족 교육문화원(원장 박창수 교수)이 맡았으며, 지난 3월 15일 최종 수상자 15명을 발표했다.

부문별 수상자로는 ▲은상(2명): 김지현(초등부·폴란드 바르샤바 한인학교), 문우주(중고등부·스페인 라스팔마스 한국학교) ▲동상(2명): 마리아 이레네 갈렌티노(초등부·이탈리아 로마 한글학교), 석사론(중고등부·독일 길 한국학교) ▲장려상(6명): 김지아(초등부·벨기에 벨기에 한국학교), 강준우(초등부·헝가리 부다페스트 한인학교), 정유덕(초등부·독일 슈바벤 한글학교), 김민(중고등부·영국 런던 한국학교), 윤영배(중고등부·체코 프라하 한글학교), 황보은(중고등부·독일 함부르크 한글학교) ▲특별상(공주대학교 총장상·2명): 박소현(초등부·영국 런던 한국학교), 김대경(중고등부·스페인 마드리드 한글학교) 등이다.

이번 수상자에게는 상패(장)와 부상(대상 500유로·금상 400유로·은상 300유로·동상 200유로·장려상 및 특별상 100유로)이 수여됐고, 대회에 참가한 한글학교는 학교당 150유로씩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대상 및 금상 수상자 시상식은 '유럽한글학교협의회 교사 연수 개막식'에서 재외동포재단 김정수 기획이사, 유럽총연 박종범 회장, 유럽한글학교협의회 신현숙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럽총연에 따르면, 대상을 받은 윤어진 학생은 '자랑스런 한

국, 한국인'이란 제목으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체코에 와 자라면서 느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랑스러움을 표현했다. 초등부 금상을 받은 마빈 라이스 물러 학생은 '열쇠 아니면 키?'라는 제목으로 우리말을 곱게 쓸 필요성을 역설했고, 중고등부 금상을 받은 문혜련 학생은 어릴 때는 몰랐으나 자라면서 한국인이 왜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이번 글짓기 대회에는 초등부(만6~11세)에서 14개국, 39개 한글학교에서 354명이 참여했고, 중고등부(만12~17세)에서는 14개국 34개 한글학교 252명이 참여했다. 글짓기는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국 한글학교별로 실시됐고, 3월 2일까지 재유럽한인 총연합회 사무국에서 원고를 취합해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원에서 심사를 맡았다. 심사는 심사위원장 2명(유병환 공주대 교수, 박석준 배재대 교수)과 심사위원 6명이 진행했다.

심사기준은 주제의 적절성, 창의성, 완성도, 맞춤법, 고운말 사

용의 5개 항목 및 세부항목을 선정해 7점 척도로 진행됐고, 대리 작성이나 표절 등이 의심될 경우 심사 대상에 제외시켰다.

또, 1차 심사는 심사위원 6명이 3명 1조로 팀을 나눠 각각 초등부, 중고

등부를 심사했고, 2차 심사는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 3차 심사는 심사위원장이 진행했다. 2차 심사는 각 부문별 상위점수 20개 작품을 선정한 뒤 재심사를 실시했으며, 3차 심사는 각 부문별 상위 점수 10개 작품을 선정한 뒤 수상자 순위를 결정했다.



'제1회 유럽 한인청소년 한글 글짓기 대회'에서 중고등부 금상에 문혜련(영국 강북러던 한글학교)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미나 참관기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행복한 교류의 시간”

이종미 재외동포재단 교육사업팀장

“이 종미 팀장님, 이번 헝가리에서 열리는 유럽한글학교 교사연수는 협의회가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했고, 동유럽 나라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입니다. 국내 유명한 교수님과 문화계 저명인사를 강사로 꼭 보내주셔야 해요. 부탁드립니다.”

연수를 준비하는 협의회 임원 분들이 재외동포재단이 파견할 강사진 구성을 놓고 걱정이 되셨는지 연일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연락해 오셨다.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강사를 파견하겠다고 말했지만 내심 걱정이 됐다. ‘혹시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어찌지!’라며 마음속에 살짝 불안감이 스치기도 했다.

지난해 교육사업팀에 합류하면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한 것 중의 하나가 한글학교 교육 강사진을 확대하고, 국내 중고등학교 교육 일선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교사를 현지 교사 연수 때 강사로 파견하는 거였다.

중학교 국어교사로 교육청 교사 교육 강사인 강용철 선생과 역사교육을 맡은 이방원 선생의 강의는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았다.

강의를 듣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관심과 열정은 남달랐다. 해외에 살면서 그 많은 역사 지식을 알고 어떻게 다 알고 있는지 놀라웠다.

얼마 전 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이 재외동포 역사교육을 위한 협약체결을 했는데 유익하고 질 높은 역사 콘텐츠를 많이 보급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선생님들의 배움에 대한 진지한 자세는 그 밑에서 배우는 아이들에게도 축복이란 생각이 들었다.

참가자 못지않게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고 밤늦게까지 대화하고 토론하며 함께 해 준 두 강사님도 아주 고마운 분들이다.

한국에 돌아와 한글학교 선생들과 주고받은 이메일만도 천여 통이 넘는다 하니 네트워크는 이어지는 것 같다. 이 일을 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 많은 사람임이 틀림 없다. **장**



4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외동포 언론인들 한자리에 한민족 공동체 발전 논의

세계한인언론인대회, 재외동포언론인대회 국내서 열려

전 세계 한민족이 거주하는 곳 대부분에서 풀뿌리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동포 언론인들이 고국에서 대회를 열고 한국을 알리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세계한언·회장 이승봉)와 연합뉴스(사장 송현승)가 공동 개최한 제12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가 4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과 경주, 울진 등에서 열렸다.

아울러 (사)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이하 재언협·회장 이종국)가 주최한 '2013 재외동포 언론인대회'도 서울과 공주, 부산 등에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제고 및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동포 언론인들의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한언 대회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네팔, 카자흐스탄, 러시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미국, 프랑스 등 22개국

에서 70명의 언론인이 참가했다.

이승봉 회장은 개회사에서 "박근혜정부가 정치 혁신과 함께 서민을 생각하는 복지정책을 실현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력하나마 돕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송현승 사장은 환영사에서 "한민족 공동체는 재외국민 한분 한분이 흘린 땀을 바탕으로 현재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한인 언론인 여러분께서 모국과 동포 사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치하하면서 "앞으로도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헌신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인 언론인들은 4월 9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손잡고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코리아 홍보대사'를 선발, 임명하는 행사를 열었다. 10일에는 세계한인네트워크(대표 김영근)와 함께 '독도와 재외동포의 역할'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22개국 52개 매체에서 온 70명의 동포 언론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독도 주권 수호를 위한 재외동포와 한인 언론의 역할을 함께 모색했다. 4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경주와 울진 팸투어를 펼쳤다.



‘2013 재외동포언론인대회’ 참가자들은 4월2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7층 연회장에서 ‘한반도 위기와 재외동포사회’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한편, 한인 언론인들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박물관 앞에서 ‘전쟁 반대’ 퍼포먼스를 펼쳤다. 언론인들은 이날 전쟁기념관 6·25 전쟁기념물 앞에서 붉은색 글씨로 ‘전쟁 반대’라고 쓴 플래카드를 펼치고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모아 구호를 외쳤다.

북핵 위기 속 한반도 평화 모색

한편, 재언협은 ‘2013 재외동포 언론인대회’ 개막식이 열린 4월2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자랑스런 한국인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열었다. 재언협은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한 동포 리더와 해외한인사회 네트워크를 위해 헌신한 국내 지도자 3명을 선정해 이 상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자랑스런 한국인상’ 수상자로는 박종범 유럽한인총연합회장, 이옥순 월드옥타 동경지회 이사장, 민병갑 뉴욕 킨즈칼리지 석좌교수,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 공동대표, 최성 고양시장,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6명이다.

참가자들은 23일 ‘한반도 위기와 재외동포사회’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김인구 호주 한국신문 편집인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프로세스가 지나치게 원론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채찍과 당근, 무관심 전략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주제발표에서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하며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재외동포사회의 컨센서스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인구 편집인의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약 1시간 반동안 진행됐다. 김상욱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교수(한인일보 발행인)가 전체 사회를 맡았으며, 손광주 NK테일리 통일전략연구소장,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뉴욕 노창현 뉴스로 발행인, 김원일 모스크바 뉴스 발행인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노창현 뉴스로 발행인은 “뉴욕에서는 보수진영이 북한을 규탄하는 시위와 진보진영이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재외동포들이 한반도 정세를 더욱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하는 한편, “미국 의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해외 한인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에는 참가자들이 서울시청 방문 간담회를 갖는 한편, 공주대 옥룡캠퍼스로 이동해 재외동포 모국수학 참가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4일에는 공주대 재외동포 모국수학과정 학생 수업 참관, 백제 역사문화유적 취재, 경주 직지사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로 다시 이동해 ‘18대 대선과 각국 재외선거 사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5일에는 부산 메디칼 스트리트, 국제영화의 거리를 취재하고 김영섭 국립부경대 총장과 오찬을 한 뒤, 경주 첨성대 팸 투어에 참가했다. 26일에는 경주이스타불 세계문화 엑스포 현장을 취재하고,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고양시 국제꽃박람회를 참관했다. **장**

재외동포재단, 동북아역사재단과 ‘교육용 콘텐츠 활용’ 협약



재외동포재단은 4월 25일 동북아역사재단과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소회의실에서 재외동포의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활용’ 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학준)과 4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소회의실에서 재외동포의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활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재단의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동북아역사재단의 교육 콘텐츠를 상호 활용, 전 세계 1천900여 개의 재외한글학교와 재외동포단체 등에 동북아역사 및 독도에 대한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재단은 향후 동북아역사재단의 교육용 콘텐츠를 수록한 DVD 등을 전 세계 재외한글학교 및 재외동포단체 등에 배포

하고,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사이트인 ‘스터디코리아안 (<http://study.korean.net>)’과 연계하여 온라인상에서도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근 재단이사장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우리 역사 교육 등을 통해 민족 정체성 유지와 국가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14대 국정과제에서 720만 재외동포의 역량 결집을 위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글교육 및 우리 역사·문화 교육에 대해 혁신적 개선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재외한글학교 교사 대상 온라인 수강생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서울대 평생교육원은 전문대학 졸업 또는 대학 4학기 이상 수료자) 중 해당 공관에 등록된 한글학교 재직 교사로, 모집인원은 220명 내외다.

수강생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과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가운데 한 곳을 골라 오는 7월 1일부터 14주간 온라인으로 12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교육 내용은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실습 등이다.

수강 희망자는 5월 31일까지 거주국 공관을 통해 재단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15회 재외동포 문학상 작품 공모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은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어 활용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한 '제15회 재외동포 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4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는 이번 공모는 △성인부문 시, 수필, 단편소설 △청소년(초·중·고등학생)부문 글짓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응모작품 중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등 총 30편의 작품과 한글학교 2개교를 선정해 특별상을 시상한다.

재단은 올해 성인 부문 장르별 대상 수상자 3명을 모국에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모국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재단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 글짓기' 작품 공모도 함께 시행한다.

국내 청소년 대상 재외동포 글짓기 공모의 주제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자유 주제이며 응모된 작품은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



4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는 이번 문학상 공모는 ▲성인부문 시, 수필, 단편소설 ▲청소년(초·중·고등학생)부문 글짓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쳐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 총 12편의 작품 수상자에게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재외동포 문학상'과 '국내 청소년 재외동포 글짓기' 공모는 동일 일정으로 시행되며 수상작 결과발표 역시, 8월 중순경 재단 홈페이지(www.korean.net)를 통해서 동시에 발표한다.

한상넷(www.hansang.net) 활성화 이벤트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한상넷(www.hansang.net)'은 경제교류 활성화의 장이다.

한상넷은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한상관련 인물에 대한 DB를 갖추고 조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외의 한상관련 주요 단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관련 분야의 해외진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상넷은 재외동포재단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세계한상대회'의 후속조치뿐만 아니라 사이버를 통한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한 비즈니스의 장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한상넷은 국내외 기업인들의 한상넷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4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쿼즈 이벤트를 실시해 매주 당첨자를 공지하고 있다.

'사이버전시관'을 맞추는 쿼즈 이벤트로 사이버전시관은 기업의 제품이나 상품정보를 등록, 전시하여 전 세계 각지의



한상넷의 최근 국내외 회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한상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다.

한편, 한상넷의 참여마당에는 국내외 동포의 사업 아이템과 제품을 소개하는 글이 860여 가지가 올라와 있어서 다양한 비즈니스 홍보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창**

한국 스타일 vs 독일 스타일

‘히든 챔피언들’이 받쳐주는 독일경제

독일은 소박하지만, 평화와 풍요로움이 깃든 자연, 무미건조할 만큼 단조로운 생활환경,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주변 환경,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나라이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고지식하고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답답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느린 듯하지만 확실한 그들만의 삶의 철학이 독일 발전의 원동력임을 이해하게 된다. 답답해 보이지만 결국 고지식함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독일 스타일’이라고 할까.

반면 우리 ‘한국 스타일’은 뭐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 한국을 아는 독일인들에게 한국 하면 떠오르는 말을 물으면 “빨리 빨리”라고 웃음 지으며 대답한다.

변화, 혁신, 창조 등등 한국에서 흔히 듣는 말들이다. 멋진 말들이지만 무엇을 위한 변화, 혁신, 창조인지, 또한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하고, 창조할지 곰곰이 오래오래 고민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인 결과보다 장기적으로 존속하며 끊임없이 가치 창출을 해나가며 ‘히든 챔피언’이 된 독일의 중소기업은 변화와 혁신, 창조를 어떻게 이루어 왔는지 예로 들어보고 싶다.

EU 집행위원회 자료를 보면 독일의 중소기업은 약 400만 개로

전체 기업의 99%이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독일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중 34만 개 기업이 수출에 참여한다.

“독일이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2008년 세계 경제위기에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빨리 극복한 비결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때문이다. 특히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강하고 작은 1천600여 개 ‘히든 챔피언’이 큰 역할을 한다”는 독일 만하임 응용과학대 빈프리트 베버 교수의 말이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건들, 예를 들어 연필, 가방, 티슈, 그릇, 가구, 전기제품, 세제, 의류, 장난감, 매일 마시는 커피, 물, 차, 음료수 등등 제조업체를 조사해보면 설립된 지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경우가 아주 많다. 같은 장소에 백 년 이상을 머물며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끊임없이 개발하여 혁신적인 제품으로 소비자를 만족하게 하고, 상표의 가치를 높이고, 고용과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독일 기업의 저력에 부러움과 놀라움이 느껴진다.

우리가 흔히 쓰는 ‘빨리 빨리’라는 말이 행여나 원칙 없이, 근본적인 탐구 없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목적 없이도 빨리하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조금이라도 내포되어 있을까 봐 우려스런 마음이 든다. 시간에 쫓겨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기보다는 우리가 시간을 이끌며 차근차근 내실을 기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외형보다 내실 중시하는 국민성

짧지 않은 독일 생활을 했음에도 아직도 문득문득 '과연 서로 다른 문화의 융합은 가능하긴 한 것인가?' 라는 물음이 든다. 처음 독일에 왔을 때 의외라고 느꼈던 것이 많았다. 빼적거리는 나무 계단이 딸린 오래된 건물, 낡은 엘리베이터,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 서비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점들, 대부분 작은 규모의 소도시가 가지는 촌스러운 분위기는 내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선진국이라는 독일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느낌이 달라졌다. 오래된 건물이 왜 존재하는지, 사람들이 왜 한국만큼 유행이 민감하지 않은지,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없는 독일이 이해가 되고 소도시의 촌스러운 분위기는 친숙함과 편안하다는 인상으로 바뀌었다.

변화를 싫어한다기보다 전통을 더욱 중요시하기에, 시간에 담긴 역사의 가치를 중요시하기에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 외형적인 치장보다 내적 만족을 더 중하게 여기는 실용적인 국민성. 동등한 관계로 규정지어진 고객과 점원 사이 서비스는 꼭 필요하지 않은 요소라는 인식. 겉으로 보기엔 차갑고 무뎠지만 한 번 친구가 되면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속 깊은 독일인! 몰랐을 땐 보이지 않던 장점이 이해와 동시에 보이기 시작했다.

아무리 문화가 달라도 아마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음을 열고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여려는 자세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낯설고 불편한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타인과의 융합, 다른 문화와의 융합 역시나 자신에게 달렸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 간의 이해와 융합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이해와 융합은 양국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피와 땀을 기억해야

올해는 한국과 독일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13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 광부와 간호사 파독 5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독일의 특별한 인연은 1960년대 1억 5천만 마르크(당시 3천만 달러)의 상업 차관을 빌리는 일에서 시작했다. 1982년까지 독일 정부 차관은 총 5억 9천만 마르크에 이르렀다.

“못사는 나라 국민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인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나는 매일 울면서 독일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다”라고 당시 ‘차관 교섭 사절단’의 통역을 맡으셨던 백영훈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원장이 회상하는 장면은 오늘날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독일에서 사는 젊은 세대에겐 믿기지 않은 장면이지만 잊을 수 없는 역사의 한 부분이다.

독일에서 받은 차관과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외화 송금으로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룬 눈물겨운 이야기는 들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뭉클 적신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이바지한 공로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또한 아무도 모르는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도 산업화에 이바지한 공로 못지않은 것이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이 교민 1세대들이 긍정적인 한국인의 모습을 독일 땅에 심었다면,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2세, 3세대들은 뛰어난 역량으로 각자 속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이해와 융합을 증진 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재독 동포의 한 명인 나에게 독일 문화와의 융합은 독일인과 더불어 사는 내 삶을 더욱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필수 조건이다. 이제 막 도착한 신선한 봄 햇살로 겨우내 찌들고 움츠러든 마음을 풀고 내 이웃과 동료와 친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야겠다. **창**

이은주 독일 <재외동포의 창> 통신원



애니깽 후손에게 ‘조국’ 을 심는 멕시코 소망한국학교



애니깽 후손들이 다니는 소망한국학교의 학생들은 매년 수학여행으로 LA를 방문하고 있다. 2011년 2월 11일 LA교육문화원을 방문한 학생들이 한국 민화그리기 체험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열의가 매우 높아 2012년에는 LA에서 개최된 타민족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해 특상과 1등을 수상했다.

1905년 멕시코로 건너가 유카탄 반도 에네켄(용설란의 일종) 농장에서 일했던 한인 1천33명의 후손들은 이른바 ‘애니깽’으로 불린다. 그들은 가시 많고 독소가 있는 선인장과 식물인 에네켄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했지만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그 후손들은 멕시코, 쿠바, 과테말라 등지에 3만 이상이 살고 있다.

멕시코 티후하나에 자리한 소망한국학교를 이끄는 이메리 교장의 소망은 애니깽 한인 후손들을 위해 부족한 교실을 몇 개 더 늘리는 것이다.

2010년 9월에 세워진 소망한국학교는 미국 LA에 있는 사단법인 에네켄한인후손후원재단에서 세운 학교로 멕시코 대사관에 등록되어 있고 대사관의 보조를 받고 있으나 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이 교장은 재단의 사무총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이 교장에 따르면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열의가 매우 높아 지난

해에는 LA에서 개최된 타민족 한국어 말하기 대회서 특상과 1등을 수상했고, 올해는 장려상을 받았다고 한다.

이 교장은 학교가 설립될 때부터 교장을 맡았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 중등학교 수학교사 15년, 미국에서 한국학교 교장 5년, 한국의 학원과 같은 방과후학교(AfterSchool)의 교장으로 10년간을 교육계에서 종사했다.

소망한국학교에는 현재 8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현 지인 자녀도 10여 명 다니고 있다. 이 교장을 포함해 5명의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사들은 교원 자격증을 갖추고 있고,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어서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매주 토요일마다 10시부터 1시까지 주말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치반에서 성인반까지 학급이 나뉘져 있다.

수업은 한글과 한국 문화 수업이 주된 내용이다. 한국 문화 수업시간에는 한국 노래와 민속놀이를 배우고 한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또한 설과 추석, 3.1절, 광복절 등의 절기와 명절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

이 교장은 한국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서 지급되는 한글학교 보조금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요청한다. 그는 “3.1절, 광복절 노래 등 한국학교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사 노래를 스페인어로 번역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망한국학교는 최근 멕시코에도 불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특별활동으로 K-POP을 노래하는 팀이 3개 있어 자랑거리다.

이 교장은 “수학여행으로 LA를 방문하고 있으며 애니깽 최초로 재미동포와 함께 광복절과 3.1절 기념행사도 열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특히 그는 “김치 담그기, 다도, 세배 등 전통음식과 예절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높다”고 기뻐했다.

그는 “애니깽 후손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문화 개념으로 한국의 영토를 중남미까지 넓히는 일”이라며 “그들이 당당하게 세계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모국이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부탁했다. **장**

우리말에는 비슷한 뜻을 가지면서도 그 쓰임새는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또 뜻으로는 맞게 쓰인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관계의 말이어서 피해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면서도 뜻을 잘못 알고 쓰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선택하는 예를 들어 올바른 한국어 사용법을 알아본다.

등용문의 유래

대개 입신출세(立身出世)하게 되거나, 벼슬길에 오르는 관문 등을 통과했을 때 '등용문을 통과했다'고 말한다. 요즈음은 특히 대학 입시에서 합격했을 때 '대입 등용문을 통과했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등용문'이라는 말을 '등용'과 '문'이 결합된 말로 생각하고 있다. '등용(登用)'이라는 말이 '인재를 골라 쓰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용문'이라는 말도 '인재를 골라 쓰기 위한 문이나, 그런 시험'이라는 뜻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등용문'은 한자의 '오를 등(登)자'와 '용 용(龍)자' 그리고 '문 문(門)자'로 되어 있다. 결국 이것은 '등'과 '용문'이 결합된 낱말이다.

그 뜻은 전설과 관련이 있다. 중국의 황하 상류에 있는 '용문(龍門)'이라는 곳에 급류가 흘렀는데 그곳에는 잉어가 많이 모였다고 한다. 잉어들이 이 급류를 거슬러 오르려고 하지만 급류를 거슬러 오르는 잉어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잉어가 이 급류를 거슬러 오르면 용(龍)이 된다는 전설이 있었다. 바로 이 전설에서 유래하여 '등용문'이라는 말이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에 대한 비유'로 쓰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등용문'이라는 말은 '인재를 뽑아 쓴다'는 뜻으로 쓰이는 '등용(登用)'과는 거리가 있는 말로, 잉어가 용이 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혼자와 먼저의 발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단어 가운데는 거센 소리가 날 환경이 아닌데도 거센 소리로 발음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혼자(혼차)하느라 고생이 많았겠네.”

'혼자'라는 말은 글자 자체도 보통 소리로 나게 되어 있지만, 주위의 음성적인 환경을 봐도 거센 소리로 발음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혼차)로 발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혼자)라고 보통 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다른 경우로 '쉬운 것부터 먼저(먼치)하는게 어때?'라는 문장에서 '먼저(먼치)'라는 단어가 있다. 이 때도 '시간적으로 앞서서'라는 뜻의 부사인 '먼저'는 (먼치)로 발음될 환경이 아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먼저'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 '지난 번'이라는 뜻의 '먼저번'이 있는데 이것을 (먼첸뻬)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는 거의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를 (먼치)라고 발음하는 것은 이 '먼저'라는 말을 단독으로 쓰일 때만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다. 또한 '선물 상자를 어디에 숨겨(숨겨) 놔는지 못찾겠다'라는 말에서처럼 '숨기다'를 (숨기다)로, 또 '숨겨 놓다'를 (숨겨노타)로 발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로 (숨기다)와 (숨겨노타)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그 때 당시'는 중복된 말

“이 일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어땠나?”

“그 때 당시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옛날을 회상하며 얘기할 때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다. 방송 인터뷰를 듣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때 당시'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당시(當時)'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이 생긴 그때'이다. 그래서 이 '당시'라는 단어 안에는 이미 '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와 '당시'를 반복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앞의 대화에서도 '그 때 당시에는'이 아니라 '그 때에는'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정도로 고쳐서 말하는 것이 좋다.

이와같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사용된 경우의 예로, '역전앞'이나 '처갓집' 같은 것이 있다.

'역전앞'이라는 말에서 '전(前)'은 '앞'이라는 뜻의 한자어이므로 같은 뜻의 말이 반복 사용됐고, '처갓집'에서는 '가(家)'라는 말이 '집'을 뜻하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역시 같은 뜻의 말이 반복 사용된 것이다.

이 경우에도 '역전앞' 보다는 '역전'이, '처갓집' 보다는 '처가'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장**



“중국 진출, 현지 기업과 ‘동반’ 협력 중요”

조선족 기업가 엄광철 선성글로벌 사장



1999년 중국 다롄(大連)에서 맨주먹으로 ‘선성글로벌’ 물류 회사를 차여 연간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엄광철(40) 사장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혼자 모든 걸 하겠다며 사업하다가 망하는 한국 기업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중국에서는 안정적으로 빨리 성장하기 위해 ‘동업’을 권장하는 풍토인데 말이죠. 상대를 믿고 함께 성공하려는 동반자 의식이 비즈니스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초창기에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해 세계시장에 파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중국 내 수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며 “현지 사정을 꿰뚫은 조선족 기업과 공동투자하거나 주식 인수 등을 통한 합작이 리스크를 피해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지린(吉林)성 훈춘(琿春) 출신인 엄 사장은 1995년 연변대를 졸업하고 잘나가던 한국계 물류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나 2년 뒤 불어닥친 IMF 여파로 회사가 부도나자 재취업 보다는 창업을 선택

했다.

엄 사장이 가장 먼저 뛰어든 사업은 물류 분야다. 그는 “물류는 생산자와 고객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중심으로 하고 신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를 기초로 하고 완벽함을 목표로 한다’는 경영 방침을 세웠죠. 제품의 출고에서 보관, 운송, 배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정성을 다해 대행해줬습니다.”

엄 사장의 ‘감동 경영’으로 선성글로벌은 2009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경쟁업체들이 줄이어 도산할 때도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현재 LG, XTS, 포스코, 창춘(長春) 제1자동차 등 국내외 대기업을 포함해 400여 개 기업에 복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류 운송량은 연간 6만 컨테이너가 넘는다.

선성글로벌은 성장을 바탕으로 훈춘에 소재한 천일목장을 인수했다. 과거 조선을 떠난 선조가 만주 땅으로 몰고 온 한우(연변황소) 600마리와 900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이 목장을 중국 최대의 관광목장으로 만들고, ‘연변황소’를 5년 내 조선족의 으뜸가는 브랜드로 만든다는 엄 사장의 목표다.

최근 그는 조선업에도 뛰어 들었다. 지난해 다롄의 오리엔탈중공업조선소를 현지 기업인들과 합작해 인수한 것이다. 엄 사장이 조선소를 인수하겠다고 나서자 불황을 이유로 주변의 반대도 심했다. 그러나 그는 가격 출혈 경쟁보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중국 내 석유와 광산 개발 붐에 착안해 석유시추용 장비를 2년간 800억 원 물량 수준한 것이다. 엄 사장은 6개월 안에 정상화시킬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화상(華商)들은 한국과 중국의 두 나라를 잘 아는 조선족을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조상은 이미 100년 전에 중국 땅으로 건너왔기 때문이라면서요. 우리는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꼭 틀어잡고 ‘중국의 유대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엄 사장은 그래서 조선족이 전 세계에 진출하기를 권한다.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는 세계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창**



빨래

금혜정(싱가포르) 2012 동포문학상 시부문 가작

나는 당신이 벗어 놓은
하루의 꺾데기입니다
꼭 맞는 신발 안에서 종일
당신과 포옹한 양말입니다
점심 때 흘린 당신의 짠 국물 한 마디가 슬퍼서
깊이 스며든 바짓가랑이의 마음 한 쪽
속이 뒤집힌 채 멎할 때
나보다 오래 산 흰 구름이 지나가며
오늘과 오늘은
강물보다 빨리 흐르는 세월이라 합니다
내일과 내일은
구름인 듯 가벼이 떠 있다가도
어느새 떨어져 내리는 빗방울이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어깨에
지친 노을이 물든 당신을 보며
넉넉한 물로 내 전부를 흠뻑 적시고
여기저기 때 묻은 생각도 두어 번 헹구고 나면
소매로 닦았던 당신의 땀방울까지
비 그친 아침처럼 깨끗해지기를
그리고 나는 내일 다시 동행하는
당신의 옷이 될 수 있기를

넓은 사진첩 속 풍경, 그리고 새만금... 군산

군산의 풍경은 독특하다. 빛바랜 사진 같은 풍경이 있는가 하면 화려한 도심과 새만금 방조제에는 미래가 담겨 있다. 군산이 매력적인 것은 바로 '시간의 미학(美學)' 때문이 아닐까.

흐릿한 근대의 풍경

군산이 개항된 것은 1899년이다. 올해로 114년이 됐다. 물자를 실어 나르며 분주하던 항구와 북적대던 거리를 담은 근대의 사진은 당시 군산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와 선조들의 아픔이 깃들어 있다. 군산을 방문한 이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 역시 개항과 일제강점기 때 조성된 거리와 건축물이다.

군산 내항을 비롯해 월명동, 영화동, 신흥동, 금동 일대는 대표적인 '근대 역사 문화 거리'이다. 이곳에는 뜬다리 부두(부잔교)를 비롯해 일본식 목조 가옥과 관청 건물, 사찰 등 개항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생겨난 구조물들이 자리한다.

이곳에서는 '가비', '장군의 아들', '바람의 파이터' 등 근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촬영됐다.

군산세관은 1908년 독일인이 설계하고 벨기에에서 수입한 붉은 벽돌로 지어졌다고 한다. 내부에는 당시 군산항의 풍경을 보여주는 흑백사진이 전시돼 있다. 1990년대까지 유흥업소로 사용됐던 '구(舊)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구 일본 18은행 군산지점'은 복원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1936년에 지어진 술산리의 임피역도 복원되고 있어 이후의 모습이 기대된다.

군산 내항 인근 월명공원 아래의 해망굴은 1926년 뚫은 반원형 터널로 높이 4.5m, 길이 131m이다. 당시 교통의 요충지로 인근에는 일본 신사와 공회당, 독립의료원, 은행 사택 등이 자리했다고 한다.

경암동 철길 풍경도 특이하다. 구 군산역에서 조촌동까지 총연장 2.5km 구간의 철길로 일제가 1944년 신문용지 재료를 나르기 위해 준공했다. 기차에서 차창 밖으로 손을 뻗으면 닿을 듯이 집들이 들어서 있다. 기차의 통행은 중단됐지만 옛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어 많은 사진가들이 찾고 있다.

탁 트인 해안의 풍광

항구도시에서 바다 풍경을 찾아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군산군도의 섬들을 찾아가도 좋지만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가는 길에서 바다의 미려함을 감상해도 좋다.

군산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또 다른 것은 바다이다.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방조제의 풍광,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황홀한 해넘이는 근대문화유산에 한정돼 있던 군산에 대한 이미지를 아름답게 덧칠하게 한다.

고군산군도의 대표 여행지인 선유도와 장자도, 무녀도는 군산항이나 비응항에서 여객선을 타야만 닿을 수 있다. 그러나 비응항과 신시도, 야미도는 자동차를 이용하면 새만금 방조제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새만금 방조제가 선사하는 첫 번째 풍경은 깔끔하게 단장된 비





1

응향이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맞춰 생긴 새로운 항구로 신선한 해산물을 파는 새만금 종합수산물시장과 횃집이 있고, 항구의 아늑한 풍경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있다.

특히 비응향은 방파제 양쪽 끝에 서 있는 등대와 항구, 고깃배가 이루는 풍경이 매력적이다. 흰색과 빨간색의 등대까지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등대로 이어지는 산책로와 새만금 방조제가 이어지는 곳의 해변으로 내려가면 바지락을 먹기 위해 모여든 갈매기들의 평화로운 모습도 볼 수 있다.

두 번째 풍경은 야미도 전망대이다. 비응향에서 시원스럽게 뻗은 방조제 도로를 따라 자동차로 20여 분을 달리면 닿는 야미도

의 경우, 항구나 마을은 그다지 볼 게 없지만 전망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치안센터 뒤편의 산책길을 따라 20여 분을 오르면 도착하는 전망대에서는 시원스럽게 뻗은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군도의 풍광이 내려다보인다. 특히 해 질 무렵 오르면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이며 주변 섬들이나 수평선 너머로 모습을 감추는 태양의 환상적인 일몰을 눈과 가슴에 담을 수 있다.

한편 야미도 바로 옆의 신시도는 고군산군도의 풍경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신시도 주차장에 자동차를 놓고, 등산로를 따라 1시간 30분 정도를 가면 닿는 대각산 전망대에 오르면 발아래로 섬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장**



5

- 1 전북 군산은 20세기 초 한반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였다. 일제는 조선의 쌀과 자원을 수탈해가는 창구로 군산을 선택하고 철도와 항만 등을 조성했다. 군산 내항의 부잔교(뚝다리 부두)는 일제의 수탈사를 증언해주는 대표적인 근대 유산이다.
- 2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33km) 도로가 4월 27일로 개통 3년을 맞았다. 방조제에는 3년간 총 1천908만명의 관광객이 방문, 서해안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 3 전북 군산시 신흥동에 있는 국가등록문화재 제183호인 일본식 가옥, 일명 '히로쓰 가옥'이라 불리는 이 건물은 포목점과 농장을 운영했던 히로쓰 게쯔샤브로가 지은 전통 일본식 2층 목조가옥이다. 일식 다다미방과 도코노마 등이 있어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주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다. 영화 '장군의 아들'과 '타짜'의 촬영 장소이기도 하다.
- 4 전북 군산 월명공원 아래에 있는 해망굴(국가등록문화재 제184호). 수산물의 중심인 해망동과 시내를 연결하고자 만들어진 반원형의 터널로 1926년에 개통됐다. 한국전쟁 중에는 인민군 부대 지휘소로 사용해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으며 현재는 자동차의 출입을 막아 행인만 통과가 가능하다.
- 5 1908년 완공된 옛 군산세관은 일제의 수탈사를 증언해주는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이다.

‘2013 영비즈니스 리더 포럼’ 참가 신청

재외동포재단에서는 2013년 10월 29일(화)부터 10월 31일(목)까지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2차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합니다. 동 대회와 연계하여 현지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차세대 재외동포경제인을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영비즈니스 리더 포럼 (Young Business Leader Forum)’을 개최합니다.

미래 한상(韓商)의 주역이 될 재외동포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행사 개요

- 기 간 : 2013년 10월 28일(월) ~ 10월 31일(목)
- 장 소 :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
- 참가인원 : 약 100명(해외 80여 명, 국내 20여 명)

2. 참가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 만 45세 이하로 해외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로 주류사회에 진출한 CEO 혹은 동급 전문 경제인, 재외경제단체의 주요 보직자로 청년경제인들의 발굴과 육성을 담당하는 자 등

- 신청 및 선발 통보 : 참가신청서 작성은 재단 홈페이지 (www.korean.net)를 참고, 마감일은 5월 15일까지며, 7월 이내 선발 결과를 공관 등을 통해 안내 예정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은 올해 제7회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사진 주제는 ‘코리아타운’, ‘재외동포 삶의 현장’ 두 가지 분야로 전 세계에 형성돼 있는 코리아타운(한인타운)의 전경사진, 이국땅 직업(사업) 일선에서 일하는 재외동포의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약 3개월간 진행되며 www.korean.net 및 www.okf.or.kr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입상작은 상장과 상금(대상 1명 100만원, 우수상 1명 50만원, 입선 10명 각 30만원)을 수여한다. 또, 응모작 중 우수작 100여 편을 선정해 10월 5일 세계한인의날을 즈음하여 국내 전시회를 개최해 일반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독자후기 _ 흥혜란 미국 보스턴

안녕하세요. 보스턴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사는 흥혜란입니다. 두 아이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일은 제게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모국연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친구의 딸이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며 한국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을 보고 우리 아이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

수에 관해서 이것저것 살펴보니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연수인거 같습니다. 우선 큰애부터 모국연수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보스턴으로 이민 온지도 17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몇 번 한국을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변화된 서울의 모습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고국의 발전이 해외에 사는 우리에게겐 큰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독도 공식 웹사이트 <http://dokdo.mofa.go.kr>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교섭에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는 동도, 서도와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 336호인 독도는 60여종의 식물, 129종의 곤충, 160여종의 조류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독도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

720만 재외동포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모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